

신안 1004섬 분재정원 ‘철쭉분재 특별전시’

유리온실 · 야외 관람...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신안군은 1004섬 분재정원에서 ‘철쭉분재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유리온실 전시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철쭉 분재를 비롯해 등나무, 산사나무 분재 등을 함께 선보인다.

연분홍색과 흰색 등 화사한 꽃을 피우는 철쭉 분재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으며, 유리온실과 야외 관람로를 따라 이어지는 꽃분재가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과 사진 촬영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는 뜻깊은 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1004섬 분재정원은 사계절 다양한 분재 특별전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안=정경욱 기자

무안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

해제면 감정마을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무안군에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지난달 29일 해제면 감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사업은 전남사회서비스원과 무안군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교통과 복지환경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감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과 스트레칭 검사 등 건강검진을 비롯해 키오스크 교육, 이·미용, 안마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무안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한 어르신은 “마을로 직접 찾아와 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염색도 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온기나눔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6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무안=김상문 기자

해남,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50만원 지원

30~65세, 19명 선착순 선정

해남군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경력이음바우처’를 지원한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취업지원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부터 65세(1961.11.~1995.12.31) 경력단절 여성으로,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남군은 19명을 선착순으로 선정

해 1인당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NH농협은행해남군지부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도서구입, 취업 관련 교육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2월말까지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1회 이상),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김동주 기자

진도, 스마트 김 종자 생산시설 구축 본격화

해수부 주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 54억원 확보

기후변화 대응 수온·조도 등 정밀제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도입

진도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54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해수부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양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첨단 친환경 양식 체계(시스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도군은 수온과 조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서도 김종자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김 종자 생산 및 육상재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인력 투입은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어 안정적인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2년 연속으로 2,400억 원 이상의 물김 위관액을 기록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생산지이지만, 관내 종자 보급률은 20%에 불과해 종자 보급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설이 구축되면 관내 종자 보급률을 3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7년까지 진도군 군내농공단지내 준공될 예정인 ‘지역맞춤

형 수산종자 실용화센터’와의 연계로 통한 상승효과(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며, 총 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8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39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종자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명품 진도 김’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양식어업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재생에너지 삼호·미암 직접화단지 금융지원 논의

지역 금융기관과 간담회... 주민 참여형 지원 방안 모색



영암군과 영암군에너지센터가 지난달 27일 삼호읍행정복지센터에서 ‘삼호·미암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 농·축협과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주민 참여형 금융구조 설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주민 지분 참여형 금융구조 설계 ▲집적화단지 PF 투

자 참여방안 ▲지역 금융권 협력 확대 방안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금융권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주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주민 자부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총 사업비의 85%를 정책자금으로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5%는 마을이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군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금융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영암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금융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강진 수국길 축제 기념 ‘SNS 리뷰 이벤트’ 진행

강진군이 관내 소상공인 업소 활성화와 홍보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강진군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를 제4회 강진 수국길 축제를 기념해 6월 한 달간 특별히 진행한다.

강진 수국길 축제는 오는 6월 2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3일간 보은산 V랜드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군은 이번 축제 기간을 전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NS 리뷰 이벤트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기존 월 2건이었던 참여 인정 건수를 최대 4건(최대 2만 원)으로 늘려 운영하며, ‘베스트 리뷰’ 50명을 선정해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베스트 리뷰로 선정된 게시물은 매일 강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강진의 우수 점포들을 알리는 2차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강진군 소상공인 업체의 물품 또는 서비스 이용 사진과 함께 수국길 축제 홍보 사진(홍보물, 포스터, 현수막 등을 촬영, 이용한 업소의 1만 원 이상 영수증 사진 촬영, 개인 SNS전체 공개 필수)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촬영한 사진들을 첨부하고, 본문 글을 최소 50자 이상 작성해 게시 이후 네이버 폼(<https://naver.me/FLyT6Jh8>)을 통해 이벤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필수 해시태그는 #강진맛집 #강진소상공인 #강진내돈내산 #강진가볼만한곳 #강진산호명 #강진수국길축제이다. 이용했던 가게의 상호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인정된다.

/강진=김경선 기자

완도, 농어민 공익수당 9740명에게 70만원씩 지급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 경영 안정·경제 활성화 도모

완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 농어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증액된 수치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9740명으로 총 68억 원을 투입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부부일 경우 1인에겐만 지급하고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법·수산업법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증을 받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완

도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상품권 사용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법·수산업법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증을 받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완

/완도=이두식 기자

명암 우수 농·특산물

건강과 웰빙의 대표 음식!

달마지쌀 골드

영암멜론

대봉감

영암배

매력한우

황토고구마

무화과

황토수박

명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